

동신여고 '정구 명문' 우뚝

장원배 중고정구대회 결승서 인천 학익여고 꺾고 3연패

남고부 동신고는 경기 안성고에 3-1 역전패, 6연패 좌절

광주 동신여고가 제14회 장원배 전국 중고정구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대회 6연패를 눈앞에 뒀던 동신고는 아쉽게 대기록 달성을 실패했다.

동신여고는 26일 동신고 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강호 인천 학익여고를 3-1로 꺾고 전국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준결승에서 순천여고B팀을 누르고 결승에 오른 동신여고는 이날 첫 경기인 복식에서 박은지-최미란 조가 뛰어난 품질 플레이로 김수정-최다운 조를 4-1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열린 단식에서도 임수민이 이유정을 3-0으로 윤승을 거두고 경기스코어 2-0으로 앞서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세번째 경기 복식에 나선 동신여고 임수민-최정미 조는 상대 최혜미-전하연 조와 접전 끝에 아쉽게 3-4로 패했다. 하지만 네 번째 단식에서 박은지가 최혜미를 3-1로 제압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로써 동신여고는 전국 무적을 과시하며 대회 3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열린 남고부 결승에서 동신고는 경

기 안성고에 1-3으로 역전패, 대회 6연패의 꿈을 접고 말았다.

이날 동신고는 첫 복식경기에서 이정민-박선호 조가 상대 백두산-최유석 조를 4-2로 꺾으며 우승을 향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으나 이어 열린 단식에서 동신고는 이정민이 0-3 패, 복식에서 한인준-최준영 조가 1-4로 패함으로써 순식간에 경기스코어 1-2로 전세가 뒤집혔다.

기사화생을 노리던 동신고는 네번째 단식에 나선 윤성원이 곽민우를 상대로 접전을 벌쳤으나 2-3으로 경기의 내용을 막았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여중부 단체전 결승에서는 광주 신광중이 부산 당리중을 2-0으로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혹시 기예단? 환상적인 리듬체조 볼 연기

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에프게니야 카나에바 선수가 26일(한국시간) 이스라엘 헬론에서 열린 이스라엘 리듬체조 그랑프리대회 결승에서 묘기에 가까운 볼 연기

/연합뉴스

광주체고 김민정 '금빛 질주'

중고육상 400m 허들 우승…전남체고 女 1,600m 계주 金

광주체육고 김민정(2년·사진)이 제38회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정은 지난 25일 경북 영종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400m 허들에서 65초 24를 기록, 2위 방미라(소래고·65초83)·3위 김선희(부산체고·66초04)를 제치고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광주체육중 3학년때부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뛰고 있는 김민정은 지난해 주계 중·고대회와 전국시도대항대회 금메



달, 전국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육상 기대주이다.

또한 광주체고 이진아는 26일 열린 1학년부 8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체고는 이날 여고부 1,600m 계주에서 2위 광주체고·3위 충남체고를 따돌리고 1위로 끌어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4년간 2,200만弗

워드, 피츠버그와 계약 연장

한국계 미국 프로 풋볼(NFL) 스타 하인스 워드(33)가 앞으로 4년 더 피츠버그스 타일러스 유니폼을 입는다.

올해 피츠버그와 5년 계약이 끝나는 워드는 4년 동안 연장을 계약을 맺었고 AT통신이 2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연봉은 4년 동안 2천200만 달러를 받는다. 워드는 올해 58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워드는 그동안 "슈퍼볼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피츠버그에서 선수 생활을 끌어마치고 싶다"며 계약 연장을 희망했다.

1998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워드는 2006년 슈퍼볼에서 우승한 뒤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지난 시즌에도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다.

워드는 1998년 입단 후 통산 9천 780야드를 전진했으며 72개의 터치다운을 찍은 피츠버그 구단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다.

/연합뉴스

연봉은 4년 동안 2천200만 달러를 받는다. 워드는 올해 58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워드는 그동안 "슈퍼볼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피츠버그에서 선수 생활을 끌어마치고 싶다"며 계약 연장을 희망했다.

1998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워드는 2006년 슈퍼볼에서 우승한 뒤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지난 시즌에도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이끌었다.

워드는 1998년 입단 후 통산 9천 780야드를 전진했으며 72개의 터치다운을 찍은 피츠버그 구단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다.

/연합뉴스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

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중앙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용상에서 125kg을 든 조성빈은

라이벌 김철유가 144kg을 들어올립으로써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조성빈은 학계에서도 239kg을 기록, 김철

유(257kg)에게 18kg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동훈은 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3